

ISC (095340)

기업이슈 브리프

Not Rated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40,000 원
시가총액	6,960 억원
KOSDAQ (4/12)	890.62 pt

탐방 메모: FC-BGA 확산에 따른 러버형 소켓 침투율 증가 전망

Analyst 차용호 _ 02 3779 8446 _ eunyeon9569@ebestsec.co.kr
Analyst 남대중 _ 02 3779 8832 _ djna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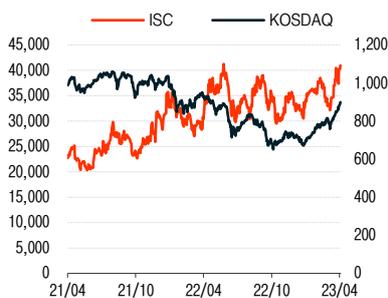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77.87 억원
외국인 지분율	9.0%
절대수익률 (YTD)	27.6%
상대수익률 (YTD)	-3.5%
배당수익률 (22.12)	0.5%

재무데이터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88	122	145	179
영업이익	2	18	38	56
순이익	3	6	30	44
ROE (%)	2.6	3.7	15.3	17.9
PER (x)	31.2	59.6	21.4	15.5
PBR (x)	0.8	2.2	3.0	2.7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K-IFRS 연결 기준

Stock Price



기업개요

ISC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고무 형태의 러버 소켓을 2003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다. 고객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400여 곳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러버 소켓 점유율 8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2022년 매출액 기준 제품별 비중은 실리콘 러버(70%), 포고 핀(10%), 기타(20%)이며 활용처별 비중은 메모리(62%), 비메모리(38%)이다.

BGA(Ball Grid Array) 확산에 따른 러버 침투율 증가

러버 소켓은 포고 핀 대비 대량 생산에 용이하며 신호 손실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소켓 시장에서 러버의 침투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의 포고 핀 라인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더볼을 사용하는 BGA 기판의 수요 증가에 따라 러버 소켓의 침투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GA 기판에 사용되는 솔더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찌르는 포고 핀이 아닌 고무 방식의 러버 소켓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켓의 단가는 패키징 사이즈 크기가 커질수록 상승하므로, 대면적 FC-BGA 수요 증가는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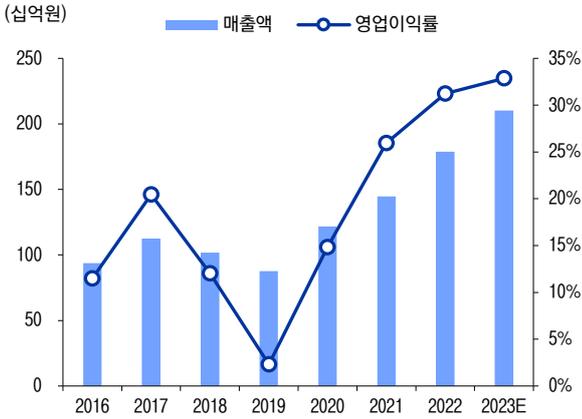
프로웰로 포고 핀 사업도 확장

아직까지 소켓 시장 내 포고 핀 비율은 70~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사와 실적 확보를 위해서는 포고 핀 시장 내 점유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ISC는 2022년 4월에 솔브레인홀딩스로부터 포고 핀을 주력으로 개발하는 프로웰 지분 97.9%를 약 74억 원에 인수했다. 프로웰을 통해 ISC는 경쟁사와의 포고 핀 기술력 격차를 좁혔으며 포고 핀 점유율 상승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포고 핀 위주로 사용 중인 고객사들을 확보한 이후 러버 소켓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실적전망 및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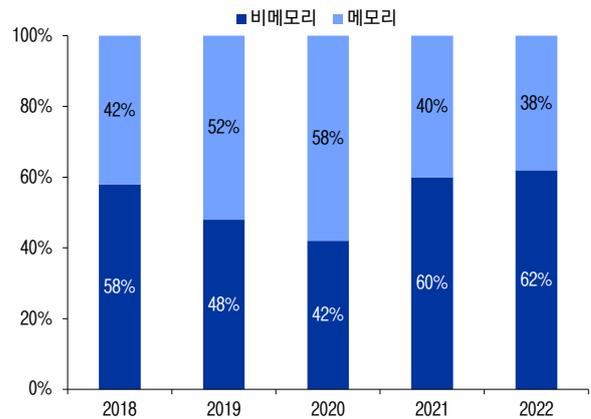
2023년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2,103억원(+18%YoY), 영업이익 691억원(+24%YoY)이며 현 주가는 실적 컨센서스 기준 P/E 12.8x이다. Peer 기업 대비 주가가 견조한 이유는 프로웰을 통한 포고 핀 고객사 추가 확보와 러버 소켓 침투율 확대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메모리 산업의 업황 회복, DDR5 도입, 러버 소켓의 침투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림1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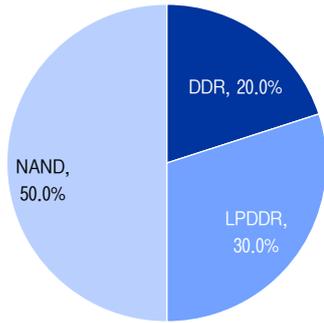
자료: ISC, Fn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3년 실적 컨센서스 기준

그림2 매출액 기준 활용처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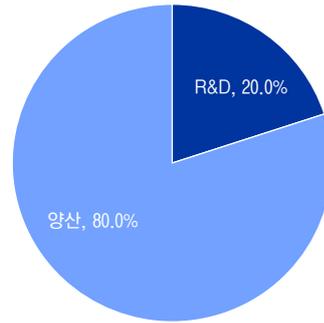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메모리 Application 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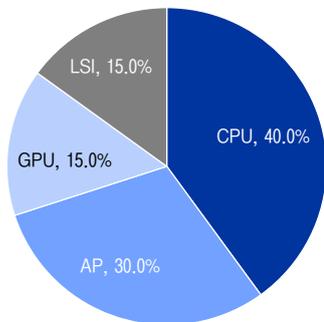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메모리 양산 및 R&D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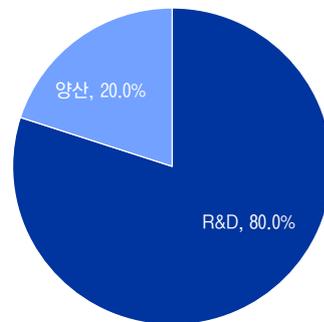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비메모리 Application 별 매출액 비중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비메모리 양산 및 R&D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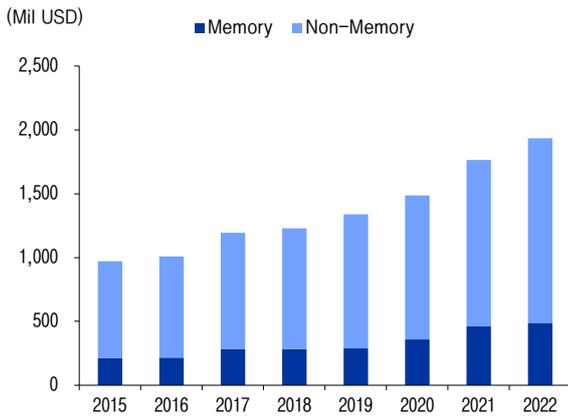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포고 핀과 러버 소켓 비교

	포고 핀	러버 소켓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라인을 교체할 필요가 없음. - 수명이 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 선이 짧아 고속 테스트에 신호 특성이 좋음. - 사출 방식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함. - 고무 형태로 솔더볼 손상을 최소화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형 틀을 기반으로 제작해 대량 생산에 불리함. - 핀 형식으로 솔더볼에 손상을 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포고 핀 라인을 교체해야 함. - 수명이 짧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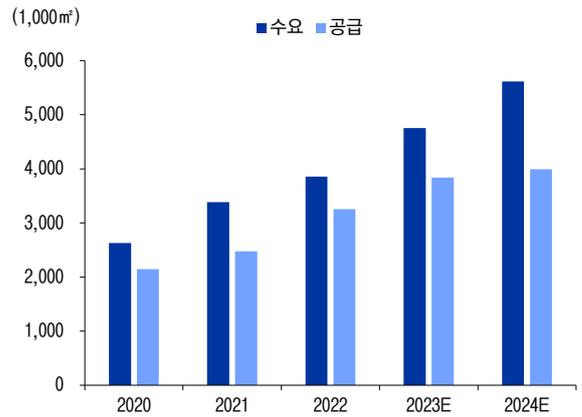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테스트 소켓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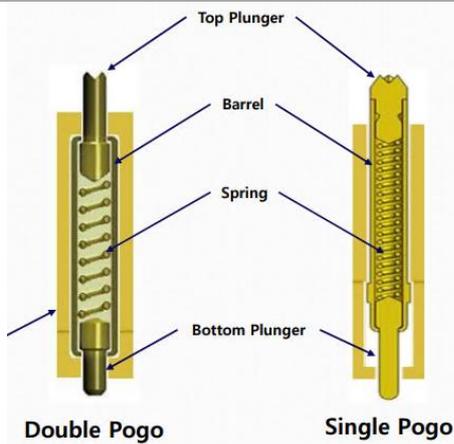
자료: ISC, Techinsight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FC-BGA 기판 수요 및 공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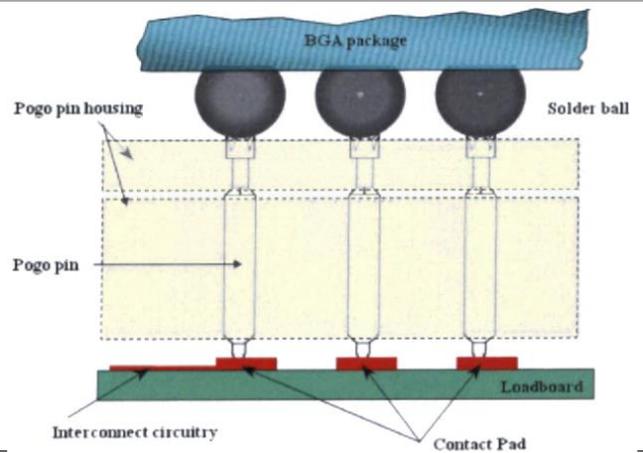
자료: 업계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포고 핀 소켓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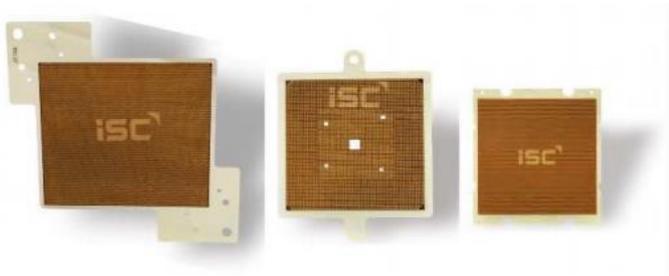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BGA 에 포고 핀 사용 시 솔더볼 손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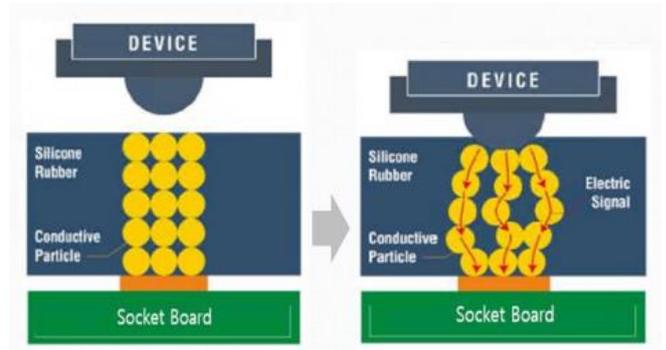
자료: SEMANTIC SCHOLA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대면적 패키지 테스트 러버 소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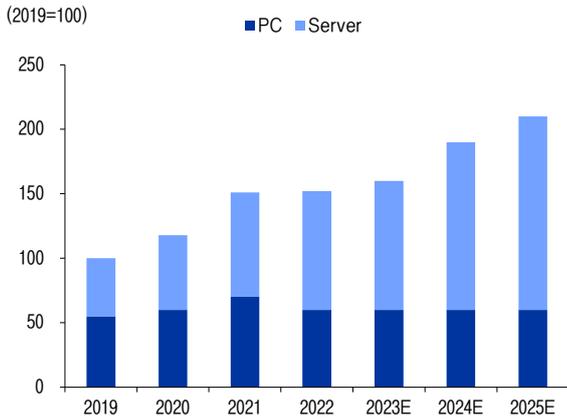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솔더볼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러버 소켓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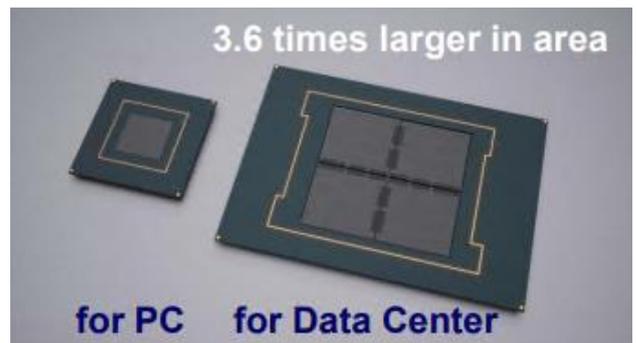
자료: IS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고부가가치 기판의 Server 향 위주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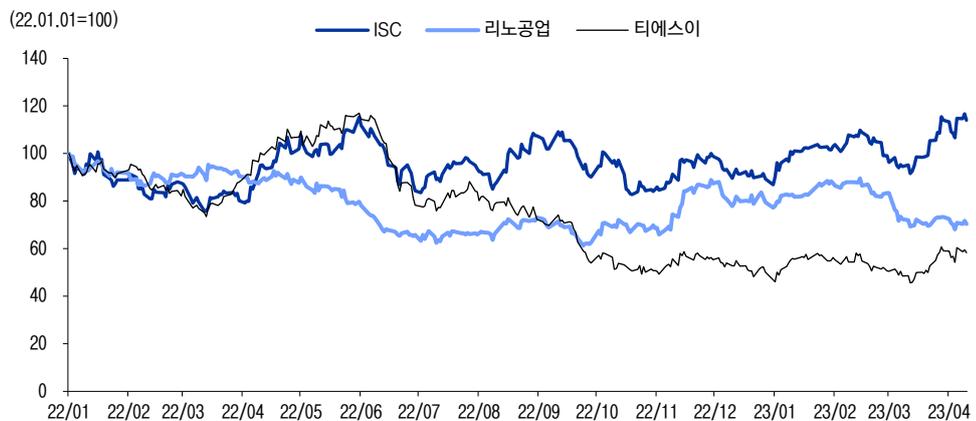
자료: Ibsiden,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PC 용과 데이터센터용 기판 면적 비교



자료: Ibsiden,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국내 테스트 소켓 업체 증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SC 목표주가 추이	투자이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라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라율(%)				
				최저 대비	최고 대비	평균 대비				최저 대비	최고 대비	평균 대비		
	2023.04.13	변경	차용호											
	2023.04.13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차용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이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3% 8.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이견 비율은 2022. 4. 1 ~ 2023.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